비대면 유지하며 불교 학술대회 '기지개'

2022년 불교계 주요 학술단체 신년 계획은

韓불교학회, 4월춘계대회
내년 50주년 행사 준비도
불교학硏 '요가와 명상'을
주제로 춘계 대회 개최해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로
국제학술대회 열려 '주목'
2년보류 세계불교학대회
개최 성사 여부도 주목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코로나19가 한국에 상륙한지 햇수로 3년이 되어간다. 하지만 그 기세는 여전하다. 지난해 이어 불교 학술계는 비대면 기조를 유지하며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를 준비 중이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고영섭)는 오는 4월 29일 '한국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 Ⅳ' 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진행한다. '한국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 학술대회는 1970년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에서 간행했던 '한국불교사상' 시리즈의 성과를 수용하며 재발굴 · 재정리하기 위해 연속으로 진행돼 왔다. 올해에는 '한국인의 경전' 을 주제로 진행되며, 〈삼국유사〉의 중심 내용과 주요특징들을 연구 · 분석한 논문들이 발표된다.

또한 한국불교학회는 현 학회장인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임기가 5월에 만료됨에 따라 차기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차기 집행부는 한국불교학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관련 기념사업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는 5월 중순 '요가와 명상' 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 계획이며, 추계학술대회는 '해오(解悟)' 와 '증오(證悟)' 의 문제를 다루는 논의가 이뤄진다.

임승택 회장은 "해오와 증오의 문제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오 혹은 지혜 반야 전통을 중심으로 한 수행론 조명이 추계학술대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반기에는 지난해 발표된 불교학 연구 논문 중 다시 읽어 봐야 하는 논문을 선정해 저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Re-KABS' 를 두 차례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신진학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가을 논문 발표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선학회(회장 정도)는 추계학술대회를 통도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술대회에서는 조선불교 중흥조인 '환성 지안(喚醒志安, 1664~1729)' 을 연구 · 조명하는 논문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2021년 열린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 올해에는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해외학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김방룡)은 3 · 4 · 5 · 9 · 10 · 11월 월례논문발표회와 정기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정기학술대회는 10월 중 열리며 올해에는 조선 후기 송광사의 부휴계 사상들을 다룰 계획이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학술계간지 **〈불교평론〉**(편집위원장 이혜숙)은 다양한 주제의 특집을 준비 중에 있다. 당장 봄호에 예정된 주제는 '교육' 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뤄지는 경쟁 위주 입시교육의 문제점을 불교적으로 고찰하고 불교적 시각에서의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여름호 주제는 '대만불교' 로 예정돼 있다.

선지식의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행사도 열린다. 특히, 올해는 '한마음 주인공 관법' 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열반 10주기가 되는 해이어서 굵직한 학술행사가 마련돼 있다.

대행선연구원은 오는 6월 17일 '한국 비구니 승가의 현황과 미래 방향' 을 주제로 대행선사 열반 10주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해외학자 11명과 국내학자 3명, 공동발표 2명이 발표자로 참여하며, 제4회 묘공학술상 시상식과 묘공학술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된다.

이밖에도 대행선연구원 3월과 7월, 9월, 12월 대행 사상과 불교학 연구 관련 논문들을 발표하는 계절발표회를 4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 개최하려했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2년이 연기됐던 **제19회 세계불교학대회**의 한국 개최도 주목된다. 현재는 제19회 대회는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서울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은수 제19회 세계불교학회 조직위원장(서울대 철학과 교수)은 "현재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며 개최 여부를 살피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 사안이 결정되면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학술 연구소들도 다양한 학술행사를 준비 중이다.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정도)는 현대 사회의 생명, 성, 기술 윤리 등을 정립하는 학술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도 스님은 " '자살 문제와 불교적 관점을 시작으로 낙태, 동물실험, 성 윤리, 성소수자, 안락사, 가상공간 등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제시하는 학술세미나를 열 계획"이라며 "종학연구소는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불교적 담론화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보 낭혜화상탑비→'대낭혜화상탑비'로

문화재청, 명칭 변경 결정
비문 주인공 무염 국사 시호
'낭혜'아닌 '대낭혜'로 확인돼
3월 성주사지 역사관도 개관


국보 보령 성주사지 대낭혜화상탑비의 모습. 최근 명칭이 변경됐다.

보령시 성주면 성주사지에 소재된 국보 낭혜화상탑비의 명칭이 '대낭혜화상탑비' 로 변경됐다.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지난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탑비의 지정명칭을 '보령 성주사지 대낭혜화상탑비(保寧 聖住寺址 大朗慧和尙塔碑)' 로 변경했다"고 1월 4일 밝혔다.

대낭혜화상탑비는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에서 지난 2010년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 로 지정명칭을 변경했으나, 낭을 표기한 한자에 오류가 있고 비문의 주인공인 무염국사에게 진성여왕이 추증한 시호가 낭혜(朗慧)가 아닌 '대낭혜(大朗慧)' 임이 밝혀짐에 따라 명칭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이 탑비는 성주사에 머물면서 통일신라 말기 구산선문 중 성주산문을 크게 일으킨 무염국사(800~888)를 기리기 위해 당시 최고의 학자인 최치원이 왕명에 의해 지은 비석으로 10세기 초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신 높이 263cm, 너비 155cm, 두께 43cm, 전체 높이 4.55m에 달해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탑비 중에서 가장 거대한 풍채를 자랑하며, 화려하고 아름다운 조각수법을 구사해 통일신라시대 석비를 대표하는 명작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번에 국보의 명칭을 제대로 바로잡게 된 것은 시민의 의견이 결정적"이라며 "탑비가 위치한 성주사지의 역사관광자원화를 위해 '천년 역사관' 도 개관을 앞두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문화재 명칭 변경 안내를 위해 안내판을 교체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성주사지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을 오는 3월 개관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문화재 영향평가제' 도입 본격화

문화재청, 1월 2일 주요 업무계획 공개

개발 행위가 문화재 보존 ·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계획 단계부터 조사하는 '문화재 영향평가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문화재청은 1월 2일 공개한 '2022년 주요업무계획' 을 통해 "개발행위가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계획 단계에서 조사 · 평가하는 '문화재 영향평가 제도' 도입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2023년까지 문화재영향평가법 제정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2024년 시범운영, 2025년 제도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표조사 대상사업을 우선 실시한 뒤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세계유산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국내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세계유산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법정사무 추진으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대규모 개발 가능성이 높은 문화재를 대상으로는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규제 적정성 등을 검토해 허용기준을 재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검토대상은 서울, 세종, 대구, 광주, 제주 등 378건이다. 수도권, 세계유산 등을 중심으로 우선 검증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총 1665건을 대상으로 보고 있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학회 제5회 성운학술상 공모

2월 27일까지 마감… 4월 29일 시상식

한국 염불신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대중하기 위해 제정된 성운학술상의 올해 공모가 시작됐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고영섭)는 "오는 2월 27일까지 제5회 성운학술상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논문 주제는 '경전에 나타난 염불신앙에 대한 고찰' 과 '염불신앙을 통한 재가자와 출가자의 가피 사례 연구' 로 △지장신앙 △관음신앙 △미타신앙 △주력신앙 △사경신앙 △경전독송신앙 △절 또는 기도신앙 등을 연구 주제로 삼으면 된다.

논문은 한국불교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불교학〉의 원고 집필 방식(통일안)에 따르며, 논문 이메일 송고 시에는 성운학술상 투고 논문임을 밝히고 투고자 소속과 전화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응모작은 심사를 거쳐 대상 1명(1000만원), 우수상 1명(300만원), 장려상 2명(각 100만원)을 선정 · 시상한다. 시상식은 오는 4월 29일 개최하는 한국불교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상담환영
■ 빙의에 시달리시는 분 !!
■ 신(神)내림 받기전에 신기운에 시달리시는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고 신기운 때문에 힘드신분!
■ 신기운을 떼어내고자 하신분!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전국 최고. 빙의치유. 천도. 신기운 제거. 차단. 벗어나기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불교금강선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